세계 AI 권위자들, 광주 메타버스서 코로나 이후 처음 만난다

DJ센터 16~18일 AICON 컨퍼런스
존비 로저스 대표·비제이 교수 등
화상·메타버스 주제 강연
메타버스 관람·비즈니스 미팅도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공지능 (AI)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는 'AICON(artificial intelligence congress) 광주 2021' 컨퍼런스가 오는 16일~ 18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강국 7개국에서 3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해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라는 주제로 AI 기술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산업융합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강연과 주제 발표 등은 메타버스(바이브테크리얼 다운 후 참여)를 활용한 가상 공간의 컨퍼런스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세계적인 엣지 컴퓨팅 분야 권위자인 하버드대학교 비제이 자나파 레띠(Vijay Janapa Reddi) 교수가 '미래 AI 기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엣지 컴퓨팅은 복잡한 연산, 그래픽처리를 하기 위한 고성능 연산기법 등을 의미한다.

비제이 자나파 레띠 교수는 하버드 내 설립된 엣지컴퓨터연구소 엣지컴퓨팅 랩 디렉터로, 모바일 컴퓨팅과 기계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구조와 시스템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컨설팅 등도 진행했다.

17일에는 국내 로봇메커니즘 연구소 데니스 홍, 가상인간 '로지'로 유명한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의 김진수 이사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의 'AI, 산업의 변화를 이끈다' 등 다양한 발제 강연이 이어진다.

또 헌터 킴 미국 플로리다 오세올라 카운티 경제국장이 AI 클러스터 포럼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AI 허브 도시로서 광주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제를 나설 예정이다.

헌터 킴 국장은 오세올라 카운티에 기술 혁신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형 계획도시인 네오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오시티는 나사, 스페이스 X,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과 항만, 공항, 철도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전략적 스마트 시티를 뜻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탑재 자율주행 버스를 설계·제작 및 판매하는 로컬 모터스(Local Motors)의 CEO 이자 공동 설립자인 존비 로저스(존. B Rogers)는 AI 테크 분야에서 '자율 주행 솔루션'을 주제로, 자율주행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우는 기술 개발 기업인 메이 모빌리티 (May Mobility)의 디렉터인 사나 다운스(shana Downs)는 '자율주행 운영과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에 나선다.

이번 컨퍼런스 현장을 방문하면 생활 속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강연부터 투자 IR, 채용 박람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세계 수준의 AI 전문 컨퍼런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ICON 광주 202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icon-gwangju.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과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기아 AutoLand 광주, 탄소중립 녹색걸음 동행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업무 협약
친환경차 확대·기업 RE100 달성

호남 최대기업 '기아 AutoLand 광주'가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걸음에 동참했다.

광주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기아 AutoLand 광주 박래석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친환경차 공급 확대 ▲생산설비의 공정개선으로 기업 RE100 달성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적극 동참 등이다,

기아 AutoLand 광주는 시의 2045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광주시의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 생산공정 개선,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 AutoLand 광주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과 환경, 산업이 상생하는 ESG 경영 실천과 친환경차 생태계 조성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AutoLand 광주 박래석 공장장은 "AutoLand 광주의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그린-스마트-펀 시티(Green-Smart-Fun City) 광주' 실현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길에 기아차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장터, 스타팜 제품 온라인 특판전

연말까지 91개 제품 할인 판매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대한민국 대표 농장 스타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펼친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판전에선 국가가 인정한 도내 스타팜의 91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스타팜은 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술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등록, 식품명인 등 국가인증을 받아 우수 농식품을 생산하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엄격한 심사와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정·관리한다.

전남에는 유자차·석류즙을 생산하는 고흥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 발아현미·미숫가루를 만드는 곡성농업회사법인 ㈜미실란, 한과를 제조하는 담양 농업회사법인 ㈜안복자한과 등 45개 스타팜이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남도장터는 스타팜 온라인 전용관을 개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스타팜 명칭 및 로고 사용 승인을 하고, 스타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잡곡(오색미) 1kg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최근 여유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지역 대표 농장인 스타팜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새 수익을 창출하도록 온라인 판로를 돕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친환경농업 기반사업 선도

9개 생산자단체 공모 선정 돼
국비 85억 확보…전국 51% 차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도내 7개 시·군 9개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85억원을 확보했다.

시·군별 사업 대상은 ▲나주 '자연이좋은사람들' ▲고흥 '팔영농협' ▲보성 '북부농협'·'우리원' ▲보성 '보림제다' ▲화순 '영글어농장' ▲영암 '서영암농협' ▲무안 '케이팜영농조합'· '행복한고구마' 등이다.

전남도가 확보한 85억원은 전국 총사업비 167억원의 51% 규모다. 이는 지난해 57억원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지역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개소당 평균 10억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식품부 공모 평가에 대비해 도내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법인을 적극 발굴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호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했다.

전남도가 그동안 확보한 연도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량은 2019년 6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8개소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에 큰 보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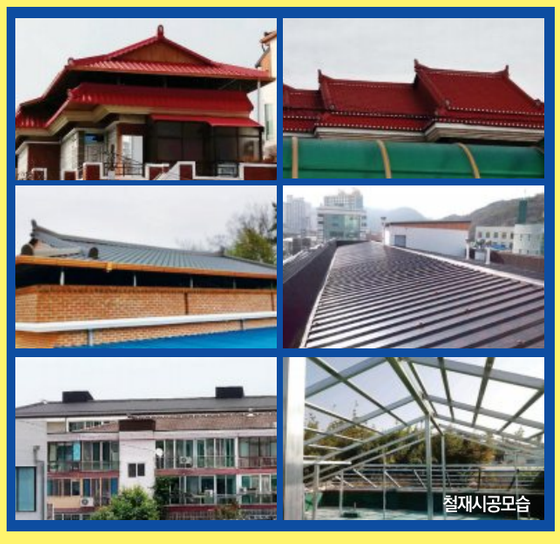
11월 말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4만463ha로 전국 7만5216ha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5870ha로 전국 64%에 달한다.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1번지'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 행/ 문/ 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